



당중앙 20 기 4 차 전원회의의 정신 학습관철 중앙강연단 보고회 장춘서

심단양 강연보고 황강 사회 연설 호옥정 참석

당중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6 일 당중앙 20 기 4 차 전원회의의 정신 학습관철 중앙강연단 보고회 및 성당 위 리론학습중심조 집체 (확대) 학습 회가 장춘에서 개최되었다. 중앙강연 단 성원이며 국무원 연구실 당조 서 기이며 주임인 심단양이 강연보고를 했다. 성당위 서기 황강이 보고회를 사회하고 연설했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심단양은 당중앙 20 기 4 차 전원회의의 기본 정황과 계획〈건의〉기초 과정을 전면적으로 소개하고 ‘14.5’계획 기간 우리 나라 발전 성과와 ‘15.5’계획 시기 국내의 정세를 깊이 천명했다. 또한 ‘15.5’계획 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지도사상, 중요 원칙, 전략적 과업, 중대 조치를 심도 있게 해석하고 전원회의의 정신 학습관철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다. 심단양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원회의에서 이룩한 중대한 성과와 채택한 중대한 포지들은 습근평동지를 핵

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결 인솔하여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이 두가지 기적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차게 열어가는 역사적 주동성을 충분히 구현했는바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반드시 중대하고도 심원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5’계획을 잘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단계적, 점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다.

심단양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당의 령도의 최고 원칙이며 전당이 반드시 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규율과 정치규칙이다.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으로 시종일관하게 습근평동지를 핵

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력을 유지해야 한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견강한 지도 아래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분발하고 분투한다면 반드시〈건의〉가 그려낸 웅대한 청사진을 한걸음씩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나갈 수 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황강은 회의를 사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 성 상하는 당중앙 20 기 4 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확실하게 사상과 행동에 통일시키고 학습관철 열풍을 재빨리 일으켜 길림성 ‘15.5’계획의 발전 청사진을 깊이있게 계획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 개혁에서 나타난 문제의 해결, 민생 복지 증진, 발전과 안전의 통일적 계획,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가일층 중시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고회는 화상회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성급 현직 지도간부, 성급 로간부,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 비서장, 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성감독위원회 위원, 중앙과 성급 직속부문 단위와 중점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의 책임자, 각시(주)와 매화구시 및 각 현(시·구) 당위, 인대 상무위원회, 정부, 정협 지도부 성원과 법원 원장, 검찰원 검찰장, 장백산보호개발구 당사업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지도부 성원, 기관 당원간부, 각급 강연원, 각계 군중, 사생 대표 등이 여러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심단양은 중국제일자동차그룹, 장춘시 남관구 민강가두 구성사(九圣祠)사회구역을 방문해 전원회의의 정신을 강연하고 기업 종업원, 기층 간부와 군중 대표들과 교류를 진행했다. / 길림일보

‘AI+’ 전면 시행… ‘15.5’ 기간 핵심 엔진으로

우리 나라에서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무부 등 5 개 부서는 도시 상업 시스템에서 AI 등 기술의 통합 응용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통운수부는 ‘15.5’계획 기간 ‘AI+ 교통운수’ 6 대 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러 업계 전문가들은 AI가 ‘15.5’ 기간 고품질 발전의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대박을 터뜨린 ‘딥시크’부터 ‘우수테크 로보트’의 급성장까지 우리 나라 AI 분야는 현재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다. 북경교통대학 중국첨단제조연구센터 집행주임 주명호는 “우리 나라는 현재 파운데이션(基礎) 모델, 휴머노이드 로보트 등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업 응용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작업장의 스마트 생산라인에서 도시의 안전방어선까지, 스마트 부두에서 관광 및 유전의 원격제어까지… AI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산업생태계를 재구성하며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심층 융합

하는 핵심기술로 자리잡았다.

AI는 자동차산업을 ‘전동화’ 전반부에서 ‘스마트화’ 후반부로 이끌고 있다. 람다자동차 한 관계자는 “고성능 컴퓨팅 칩, 고정밀 센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전자·전기 체계 구조 등 핵심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산업간의 융합이 새로운 업종과 비즈니스 기회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AI로 인해 제조업도 재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 제조, 유연한 생산라인, 스마트 검사, 스마트 물류 등 응용을 통해 생산능률과 제품 품질을 높이며 핵심공정,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자체 발전도 함께 촉진하고 있다는 게 업계측의 분석이다.

컴퓨팅산업도 AI 기술을 든든하게 뒤받침하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응용싸나리오—기술—컴퓨팅’을 정밀하게 연결해 ‘플러그 앤 플레이’(即插即用) 방식의 고능력률 강화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가 ‘15.5’계획 시기 산업 승격의 대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화사

조선족 소일금

강서성 민족단결 개인모범 표창 예정 대상에

최근 중공강서성위 통일전선부와 강서성민족종교사무국은 표창 예정인 30 개 강서성민족단결진보모범집단과 30 명의 강서성민족단결진보모범개인을 확정하고 이를 공시했는데 그중에는 구강시 도장현 명도호텔 총경리 소일금(녀, 조선족)도 포함되었다.

소일금은 도창현중화민족공동체의 식확고하수립촉진회 상무부회장으로 민족사업을 평생의 사명으로 간주하

고 있다. 촉진회가 설립된 초기, 그녀는 전 현의 5 개 민족촌과 흠어져 거주하는 소수민족 가정을 돌다녀며 거의 1 년에 걸쳐 견고한 민족사업사회 플랫폼을 구축했다. 기제 보완, 방안 제정, 조직적인 채취업 양성, 민족특색 산업 지원 등 그녀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인민넷

성인 건강검진 새 ‘국가표준’ 출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11 월 4 일〈성인 건강검진 항목 추천 지침(2025 년판)〉을 발표했다. 그 취지는 건강검진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수검자의 건강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지침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의학적 수단과 방법으로 수검자의 신체를 검사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의 징후와 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 건강검진, 종사자 건강검진, 지침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의학적 수단과 방법으로 수검자의 신체를 검사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의 징후와 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 건강검진, 종사자 건강검진, 특별한 건강검진, 기본공공위생서비스 항목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임신 전 출산 건강검진, 특별 질병의 선별 및 보편적 조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침은 18 세 이상 성인의 건강검진에 적용된다.

지침에는 주로 건강검진 자가진단

설문지, 기본검진 항목, 만성질환 위험 선별 항목이 포함된다. 그중 건강검진 자가진단 설문지는 개인의 기본 정보와 과거력 및 가족력, 생활습관 정보, 정신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수검자의 기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검사, 실험실검사, 보조검사 등 건강기록부 구축의 기초가 되어 후속 건강관리를 위한 핵심 지원을 제공한다. 만성질환 위험 선별검사 항목은 기본검진 항목과 건강검진 자가진단 설문지를 결합하여 심뇌혈관질환, 흔한 악성종양,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등 질병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만성질환 선별검사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 방안 등에 따라 추가한 개인화 심층검사 항목이다. / 인민넷

A 형 H3N2 독감 유행! 전염성 더 강해져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바이러스질병소 국가독감센터 주임 왕대연은 최근 우리 나라의 주요 독감 변종은 지난 유행 시즌 동안 A 형 H1N1 아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유행 시즌 동안 A 형 H1N1, H3N2 아형 또는 B 형 독감바이러스가 번갈아가며 우세하게 유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경우안병원 감염종합과 주임의사 리중동은 지난해 겨울에는 H1N1 이 주로 유행했으며 재작년 겨울에는 H3N2 가 유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 년이 지나면서 개체군의 면역 장벽이 낮아지고 H3N2에 대한 항체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져 감염에 더 취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H3N2는 H1N1 보다 전염성과 전파 속도가 더 강하다고 경고했다.

치료 및 검사 면에서 H3N2와 H1N1은 큰 차이가 없어 현재의 치료 방법이 모두 효과적이다. 국가독감센터에서 2025 년 3 월 31 일 이후 검사된 일부 독감바이러스 변종에 대해 내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A(H3N2) 아형과 B 형 독감바이러스 변종이 뉴라미니다제 억제제(오셀타미비르, 팔라미비르 등)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은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 / 인민넷

눈과 얼음, 꿈과 랑만이 어우러진 축제

장춘의 겨울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눈과 얼음의 계절에 진입하는 장춘시는 일련의 혁신적인 조치로 꿈과 랑만으로 가득찬 장춘의 겨울을 준비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11 월 5 일, 기자가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에서 소집한 2025-2026 빙설 시즌 첫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장춘시는 ‘스키를 배우려면 장춘에 오세요’와 ‘빙설신천지·분설카니발’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향상된 빙설 제품과 다양한 행사 그리고 관광객 중심의 봉사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장춘이 국내 유수의 빙설관광지역임을 거듭 보여주게 된다.

이번 빙설 시즌에 장춘시는 빙설 관련 제품들을 향상시켜 새로운 빙설 브랜드를 구축하게 된다. 고급화와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한계 중심, 두개 빙설 락원, 여섯개 스키장’이라는 독특한 빙설 체계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다차원적이고 고품질적인 빙설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올여름 개장과 동시에 핫플레이스가 된 신민대가를 하나의 중심으로 삼고 빙설 과학기술 및 예술 거리로 변모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민대거리에서 독특한 빙설문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남호공원 및 주변 상권과 연결시켜 빙설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조합을 형성한다.

두곳의 대형 빙설락원이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장춘빙설신천지는 총면적이 156 만 평방미터로 확장되었다. 관광객들은 76 만평방미터의 빙설놀이공간에서 천메터 눈 표류(千米雪漂流), 열정의 얼음 미끄럼틀(激情冰滑梯) 등 30 여가지 오락 항목을 즐기게 된다. 또한 독특한 ‘중국 눈마을(中国雪里屯)’ 시리즈 소비 싸나리오와 함께 ‘따스한 방에서 쉴서기(暖屋排队)’, ‘브랜드 상업거리’ 등 다양한 봉사를 제공한다. 동시에 제 12 회 전국대중빙설시즌 기간에는 인기 IP 인 ‘애그지파티(蛋仔派对)’를 도입하여 사계남하(肆季南河)강변공원에서 장춘 분설 카니발을 개최한다.



▲ 2024-2025 빙설 시즌의 장춘빙설신천지 일각 / 자료사진

빙설성(冰雪城堡)과 20 개가 넘는 특색 테마존을 건설하여 ‘빙설+IP’ 몰입형 체험이 가능한 가족 친화형 빙설주제락원도 구축할 계획이다.

여섯곳의 스키장에 초보자로부터 프로선수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키생태계를 구축한다. 묘향산, 천경산, 려화산, 정월담, 남계리 사계절 스노우 파크(南溪里四季雪 PARK) 등 기존 스키장은 운영 봉사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동시에 아시아에서 슬로프(雪道)경사도가 가장 가파른 실내 스키장인 장춘 만달파(万达茂) 실내 스키장이 새롭게 개장한다. 장춘시의 52 개 슬로프(雪道), 21 개 매직 카펫(魔毯), 10 개 리프트(索道)에 모든 연령대가 리용 가능한 스키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여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시설과 봉사로 기초로부터 프로 과정까지의 다양한 스키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스키를 배우려면 장춘으로 오세요’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깊이 심어준다.

이번 빙설 시즌에 장춘시는 빙설 관련 행사들을 향상시켜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구축한다. 제 29 회 장춘 빙설축제를 둘러싸고 길림의 지역적

특색과 장춘의 요소를 반영한 200 여 가지 특색 빙설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다.

‘빙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빙설 축제 개막식과 빙설 카니발 등 상징적인 행사와 중앙가극원 교향악 음악회, 정품 문예공연, 음악축제, 콘서트를 선보이게 되며 거리 음악회, 문화공연팀의 관광지 방문 등을 통해 문화 행사를 활발히 펼친다.

‘빙설+스포츠’ 분야에서는 스포츠 행사의 선도 및 확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적인 ‘경기’와 대중적인 ‘놀이’를 깊이 융합시킨다. 제 12 회 전국대중빙설시즌 계렬활동, 전국중소학생동계운동회, 제 24 회 정월담바사(瓦萨)국제스키축제 등 국내외 주요 스포츠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한다. 대중 빙설 스포츠를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빙설 스포츠가 장춘의 새로운 명함장이 되도록 한다.

‘빙설+상무’ 분야에서는 길림빙설 박람회를 주관하고 동계농업박람회, 장춘설맞이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장춘레우(长春礼遇)’ 소비카드, ‘식주행유구오(吃住行游购娱)’ 빙설 통합티켓(联票) 및 다양한 분야의 전

용 소비쿠폰을 출시하며 장춘 특색을 가진 음식 순위와 소비 명소 지도(消费场景打卡地图)를 업그레이드한다. 흥거리, 계림로, 중경로, 구아매장(欧亚卖场) 등 4 대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빙설상권카니발’, ‘빙설미식회’, ‘길림명품생방송축제(吉品甄选直播节)’, ‘문화창의제품장터’, ‘설맞이물품장터’ 등 행사를 개최하여 빙설 소비의 잠재력과 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번 빙설 시즌에 장춘시는 빙설 관련 봉사를 향상시켜 따뜻한 봉사의 새로운 모범을 수립하게 된다.

교통보장 분야에서는 철도와 항공편의 도착 및 출발 상황을 정확하게 연결시켜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한다.

봉사질 측면에서는 관광객 중심의 빙설 시즌 문화관광 봉사 품질 향상 활동을 전개하여 모든 관광객들이 장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관광안전에서는 안전생산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조사 처리하며 비상대처 방안을 보완하고 비상훈련을 강화하게 된다. / 김명준기자